

파리의 가을은 문학상의 계절이다. 공쿠르를 비롯한 르노도, 페미나, 앙테랄리에, 메디치 같은 주요 문학상이 10월과 11월 사이에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런데 올해 문학상 수상의 풍경은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생기가 없다. 그토록 열광적이었던 문학상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식은 지 이미 오래지만, 올해는 지난 9월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바깥 세상의 뒤숭숭함, 우엘백의 선동적인 작품인 《플랫폼》과 바이야르 출판사의 《새번역 성경》 등을 둘러싼 출판계 내부의 소란스러움으로 그저 출판계 내부의 연례 행사 정도로 마감되는 것 같다.

**주요 출판사들이 문학상 독식해**

프랑스 문학상의 역사는 1903년에 에드몽 공쿠르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공쿠르상에서 비롯된다. 그 해 출간된 산문 작품 가운데 가장 상상력이 뛰어나고 주제와 형식이 독창적인 작품을 선정한다는 수상작 기준을 정해놓았다. 그리고 일년 뒤 여성들이 주관이 돼서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하는 페미니상이 생겼다. 그렇다고 심사 대상을 여성작가의 작품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1925년에는 공쿠르상 발표를 기다리며 모여 있던 문학 담당 기자들에 의해 르노도상이 만들어졌다. 공쿠르상과 똑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같은 날 수상작을 발표하는데, 수상작이 중복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앙테랄리에상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됐다. 페미니상 발표를 기다리던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현직 언론인 출신 작가의 작품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한다. 그리고 누보로망 작가들을 주축으로 1958년에 제정된 메디치상은 새로운 기법의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학술원, 사서 연합회, 출판인 연합회, 고등학생 단체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문학상들이 있는데, 그 수는 1990년 집계에 따르면 1천5백여개에 달한다.

어쨌든 지난 11월 5일 우여곡절 끝에 공쿠르 아카데미는 공쿠르상의 수상작으로 장 크리스트프 뒤팡의 역사소설 《붉은 브라질》(갈리마르)을 선정했다. 공쿠르 문학상은 프랑스

#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잔치

문학상을 둘러싼 프랑스 출판계의 늦가을 풍경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프랑스 주요 문학상을 몇몇 파리 소재 출판사들이 독식하고 있어 잠음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은 공쿠르 아카데미의 심사모습.

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이다. 하지만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

과 시비가 매번 끊이지 않으니 지금은 그 권위가 무색한 실정이다. 그리고 올해는 남부 프랑스 아를 지방에 소재를 둔 악트쉬드 출판사가 파리 소재 거대 출판사들이 주요 문학상을 나눠먹는 폐습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학상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갈리마르, 그라세, 쇠이유, 알뱅미셀, 미뉴 등 대표적인 파리 소재 주요 출판사들의 작품이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주요 문학상을 독식하다시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올해의 르노도상은 마르틴 르코즈의 《셀레스트》(라로쉴)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1백년 가까이 되는 프랑스 문학상의 역사 속에서 독립 소자본 출판사의 작품으로는 최초로 주요 문학상을 받은 것이라 하니 그간 수상작 선정의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상을 둘러싼 음모와 갈등 심각해**

해마다 가을이 되면 프랑스의 주요 출판사들이 밀집돼 있는 파리 생제르맹데프레 일대는 문학상을 주변으로 한 온갖 루머가 나돈다. 갈리마르 출판사가 공쿠르 문학상을 의식해서 공쿠르 아카데미 위원장인 에르베 바쟁의

작품을 〈플레이야드〉 총서에 입성시킨 사실은 출판사와 심사위원들 사이의 교묘한 뒷거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하다. 그런 가운데, 줄리앙 그라크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하고, 폴 레오토 같은 이는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작가로서 불명예다”고 단언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주요 6대 문학상의 상업적 가치는 여러 다른 고상한 가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문학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공쿠르 수상작의 경우 프랑스 국내에서만 보통 25만권 이상의 판매 부수가 보장된다.

결국, 악트쉬드 출판사 대표인 프랑소와즈 니센이 공쿠르 수상작 발표 직후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출판인 대책 모임을 제기하고 나선 취지는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요 문학상의 상업적 권위를 끌고루 나눠 갖자는 의도가 더 강하다. 주요 문학상 수상작품의 표지에 둘러지는 빨간 띠가 여전히 일반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한, 문학상의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